

CJ올리브영, 24일까지 '새해 추천 아이템 기획전'

CJ올리브영이 24일까지 '새해 추천 아이템 기획전'을 연다. 2021년 헬스&뷰티(H&B) 트렌드를 주도할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스테디셀러와 신상품을 엄선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분 앰플로 주목받은 '나인위시스', 여성초 성분으로 각광받은 '아비브' 등이 대표 브랜드다. 정정욱 기자



## ICT | 상반기 스마트폰 경쟁 활활...독해진 한국폰

# 가성비 앞세운 '갤S21' vs 새 폼팩터 '롤러블'

〈삼성전자〉

〈LG전자〉

'갤럭시S21' 29일부터 순차 출시 카톡튀 줄이고 전문가급 성능 눈길 LG는 세계최초 '롤러블폰' 기대 ↑

상반기 스마트폰 경쟁이 불붙었다. 특히 한국 제조사들의 전략 변화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새 플래그십(주력상품) 스마트폰의 흥행을 위해 사양을 낮추면서까지 가격을 내렸고, LG전자는 '세계 최초' 경쟁에 뛰어 들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올해 첫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S21'을 29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국내에선 21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동통신 기업들은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올렸다. 쿠팡과 이베이, 11번가, 위메프 등 e커머스도 자급제 모델 사전판매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무료로 대여해 써볼 수 있는 '갤럭시 To Go 서비스'를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전국 200여 개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운영한다.

갤럭시S21은 일명 '카톡튀'(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모습)가 개선됐고, 카메라



삼성전자는 29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하는 '갤럭시S21' 기본형 출고가를 5G 플래그십 중 처음으로 100만 원 아래로 낮췄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성능도 전문가급으로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가격'이다. 기본형이 99만9900원으로, 삼성의 5G 플래그십 중 처음으로 100만 원 아래로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가격 정책이다. 또 애플의 첫 5G폰인 '아이폰12'의 물풍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아이폰12는 지난해 출시된 뒤 두 달 만에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5G 스마트폰 판매량을 넘어섰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5G폰 시장 점유율이 15.1%로, 화웨이와 애플에 밀려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 모델의 출시 일정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기고, 가격도 큰 폭으로 낮춘 이유다. 다만 가격이 빠진 만큼 일부 사양이 오히려 전작보다 하향 조정됐다는 점과 모델 간 '급나누기 논란'은 소비자들에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애플이 상반기 중 선보일 가능성이 있는 보급형 제품 '아이폰SE' 3세대 모델과의 경쟁도 쉽지 않은 양을 전망한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거의 6년 동안 적자를 낸 LG전자는 '세계 최초' 기술 경쟁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최근 막을 내린 전자전시회 CES에서 실물 영상을 처음 공개한 '롤러블'이 그 주인공이다. 이 제품은 상반기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TCL 등과 경쟁하고 있지만, 업계는 완성도 측면에서 LG전자의 롤러블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첫 롤러블 제품인 만큼 완성도와 가격이 흥행 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LGU+, '초등나라' 제공 요금상품 출시

LG유플러스는 초등학생을 위한 'U+초등나라'(사진)와 5G·LTE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요금 상품을 출시했다. 소비자들은 월정액 4만4000원의 초등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 U+초등나라는 'EBS 스마트만점왕'부터 '리딩게이트'까지 인기 초등 교육 콘텐츠를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볼 수 있는 가정학습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5G·LTE 무제한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선택형 프리미엄 서비스에 '초등나라팩'을 신설했다. 자녀 가입자를 위한 프로모션 요금제도 내놨다. 4월말까지 가입 가능한 'LTE 초등나라39'는 월 3만9000원에 데이터 3GB, 통화·문자 기본 제공, U+초등나라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부모와 자녀 요금제 연계 시 'LTE 초등나라 39'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 SKT '이니셜'로 고객센터 업무 줄인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상담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센터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17일 밝혔다. '이니셜' 애플리케이션과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연결해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 또한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니셜은 블록체인과 DID(분산신원확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본인의 단말에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저장, 제출하는 서비스다. 위변조 및 진위여부 검증에 우수한 보안성까지 갖췄다. 이니셜을 활용하면 이동통신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 KT, 서울대와 클라우드 사업모델 발굴

KT는 서울대학교와 토종 클라우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서울대학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클라우드 원팀 일환으로 기획됐다. KT는 서울대의 연구, 창업 활동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 KT 기술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기술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매일을 첫날 같은 자세로 혁신"

### 경영전략 워크숍서 혁신·도약 강조

손태승(사진) 우리금융 회장이 2021년 경영목표의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회복탄력성'을 꼽았다.

15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1년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손 회장은 "매일을 첫날 같은(Always Day One) 자세로 혁신해 시

장을 놀라게 할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자"고 주문했다. 또 "외부 충격으로 수축된 용수철이 강한 활력을 통해 강하게 튀어 오르듯, 급변하는 외부 흐름을 민첩하게 파악하는 혁신적인 기업만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재무실적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를 성장기반 확대, 디지털 넘버원 도약, 경영 효율성 제고, 브랜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글로벌 사업 선도 등 6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또 우리금융의 전 계열사 CEO들과 함께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ESG 경영원칙 서명식을 진행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고려연단, 설맞이 '네이버 브랜드데이'

고려연단은 18일 설맞이 기획전으로 새해 첫 '네이버 브랜드데이'를 진행한다. 비타민C,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특히 '고려연단 비타민C 1000 480정' 실선물 한정 에디션을 단독으로 한정 판매한다. 증정품과 할인 쿠폰, 리부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도 선보인다. 당일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은 쇼퍼 라이브도 진행한다.

정영운 기자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리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성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한빛 010-5647-5428 / 김석우 청곡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2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석서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최영민 010-4741-7008  
 초영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규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3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646-4950  
 ● 울산 서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희 010-6258-3510 / 오영수 010-3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33 / 주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권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보정 010-6416-1888 ● 이진 허찬석 010-4707-2659  
 판선희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최만드래미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리영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함태도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동광 장동우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위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Hubuntu 1644-6733